

“주변 학부모에게 공유하고 함께 의견 나눠요”



거주
경기 용인시
풍덕천동



자녀
고3, 고1



구독 기간
1년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내일교육〉은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 된 후 꾸준히 구독하고 있습니다. 고3 자녀의 입시를 준비하면서 변화하는 대입 제도와 전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했는데, 자세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최신 대입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살펴볼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내일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수시를 대비하는 고3 자녀가 있어서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를 가장 관심 있게 봐요. 합격생들의 학교 활동과 대입 전략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어 방향성을 잡는 데 참고했습니다. 또 저는 도서관에서 근무하다 보니 주변의 수험생 학부모들과 입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은데요, 〈내일교육〉에서 다룬 수시나 논술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기도 해요.

자녀 교육과 관련해 가장 큰 고민은?

지금은 고3 자녀의 대입이 가장 큰 관심사지만, 고1 자녀도 있다 보니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를 보며 불안해질 때가 많습니다.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것 같은데 대입이 어떻게 달라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질지 궁금해요. 높은 내신 등급을 확보하는 데 부담을 느껴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던데, 학급 인원이 줄어서 상위권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내일교육〉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지금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위클리 테마’에서 변화가 큰 대입을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이해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Reporter's A/S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된 후, 내신 부담 때문에 자퇴를 하고 정시에 도전하는 학생이 늘어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불안을 호소했고요. 이에 〈내일교육〉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신 5등급제에서의 학생 성적과 대입을 분석했습니다. 해당 기사가 변화가 큰 대입 속에서 중심을 잡아줄 거예요.



1198호
'내신 5등급제서 최대 5%?
올 1등급 예측 틀렸다' 기사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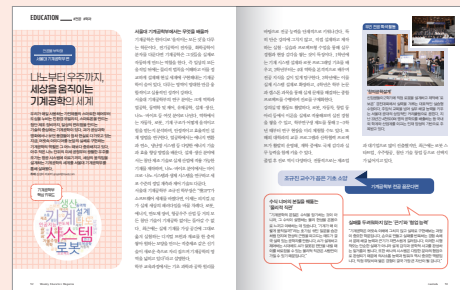
1238호

WEEKLY THEME |

2027 수시 지원 가이드_ 내신 2.5~6등급대

합격 가져올 전형 조합은? 수시 원서 6 Pack

“지원 전략을 내신 등급대별로 꼼꼼히 설명해주시니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지원 전략을 한번에 정리하는 곳이 많은데, 등급대별로 나뉘어 있으니 우리 아이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기에 용이했어요. 아이에게도 읽어보라고 권했고 함께 수시 지원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1238호

전공을 부탁해 | 서울대 기계공학부 편

나노부터 우주까지, 세상을 움직이는 기계공학의 세계

“대학별로 전공을 자세히 소개해주는 기사도 유용하더라고요. 대학마다 다른 교육과정과 특징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앞으로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데 큰 도움이 돼요.”